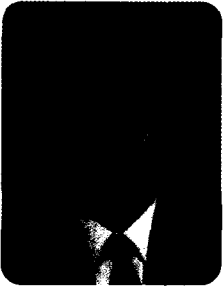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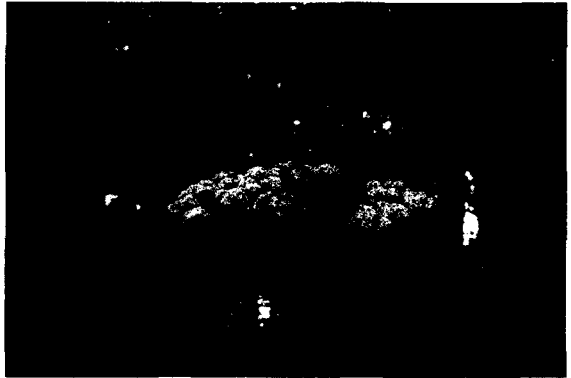
# 마가목

- ▶ 과명 : 장미과
- ▶ 학명 : Sorbus commixta
- ▶ 영명 : Mountain Ash
- ▶ 한명 : 馬牙木
- ▶ 일명 : ななかまど



최명섭 임업연구원

마가목은 전국의 표고 500~1,200m의 깊은산 큰 나무 숲속에 자생하는 낙엽 소교목으로 가을에 불타는 듯 붉은 단풍과 탐스럽게 달린 빨간 열매가 이를 때 없이 아름다운 경관수다. 유럽에서는 구주마가목을 오래전부터 가로수나 조경수로 즐겨심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들어 사용되고 있는 약간의 생소한 조경수다. 우리나라는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중 빨갛게 물드는 것은 단풍나무, 옷나무, 화살나무, 붉나무, 감나무 정도이며 옷나무나 붉나무는 아무리 단풍이 아름답다해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나 가로수로는 식재하기는 어렵다. 화살나무 역시 키가 작은 관목이어서 가로수로 식재하기는 어려워 붉은 빛 단풍은 단풍나무 일변도의 조경 및 경관조성의 풍토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마가목은 단풍도 아름답고 가을의 열매도 아름다워 조경수로서의 매력은 크다.



▲ 마가목

## 1. 생태적 특성

중부 이북 표고 500~1,200m의 심산 산복에 자생하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수고 6~8m에 달하며 지리적으로는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강한 햇빛을 좋아하지 않아서 양지보다 반음지에서 더 잘자라고 점토질보다는 자갈이 약간 섞인 사질양토와 습기있는 땅을 좋아하며 해변에서는 강한 햇빛으로 잎이 타는 경우가 있



▲ 마가목



▲ 마가목

으나 대기오염이 심한 도심에서는 잘자란다. 산벚나무, 부계꽃나무, 시달나무, 분비나무, 거제수, 사스래나무와 함께 혼생한다.

## 2. 형태적 특성

어린가지와 겨울눈에 털이 있고 겨울눈에는 점성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기수우상복엽으로 소엽은 9~13개 이고 피침형으로 길이 2.5~8.0cm로서 표면은 녹색이며 뒷면은 연한 녹색으로 가장자리에 길고 뾰족한 복거치 또는 단거치가 있다. 복산방화서(複繖房花序)는 지름 8~12cm로 털이 없으며 5~6월에 지름 8~10mm의 순백색 꽃이 소박하게 핀다. 이과(梨科)는 둥글고 지름 5~8mm로 10월에 홍색으로 익는다. 유사종으로 소엽의 길이 9cm, 나비 1.8cm로서 뒷면 중늑(中肋)에 백색털이 있는 것을 잔털마가목(var. pilosa), 잎 뒷면에 성긴 털이 있는 것을 왕털마가목(var. rufhirtella), 화서, 꽃받침통 및 잎의 뒷면, 특히 중늑(中肋)에 길고 가는 갈색 털이 있는 것을 녹마가목(var. rufo-ferruginea)이라고 한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봄에 돋아나는 힘찬 용기와 생동감을 일으켜 주며 「馬牙木」이라는 한명도 힘차게 돋는 새순이 말의 이빨과 같이 힘차게 돋아난다 하여 붙여졌듯이 마가목은 동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관상수이다. 봄의 향기질은 흰꽃은 밀원으로 이용되고 붉게 불타는 가을의 단풍과 하얀 실경을 배경으로 한 빨간 열매도 관상가치가 높고 겨울 철 조수의 먹이로도 적당하여 도로주변의 가로수로 이용되거나 공공장소인 공원에도 잘 어울리는 나무이다.

## 4. 번식법

번식은 종자번식과 꺾꽂이 두방법으로 하며 대량번식이 필요할때는 종자번식이 경제적이다.

종자번식법 : 종자는 후숙성이 있으며 이듬해 발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2~3년에 걸쳐 발아 한다. 종자는 건조를 싫어하며 상온에서 저장한 종자는 발아하지 않는다.

종자는 채종 즉시 물에 과육을 씻어 제거한 후 젖은 모래와 섞어 0~30°의 저온에 저장하면 후숙이 이루어져 다음해 봄에 발아가 잘된다.

자생지가 한냉지대인 타인지 전남, 경남 같은 남부의 더운 곳에서는 후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2년에 걸쳐 발아한다.

특히 마가목의 과육에는 발아억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과육을 오래도록 그대로 붙여두면 발아력이 저하된다.

꺾꽂이 : 이른 봄 싹트기전에 지난해 자란 가지를 길이 15cm로 잘라 모래나 진흙에 1/3정도 묻히게 꽂는다. 발근율이 나쁘므로 발근 촉진제를 묻혀 꽂으며 반그늘지게 관리한다.

## 5. 그 밖의 용도

수피는 한방에서 馬牙木이라 하여 보신, 골통에 사용하며 열매는 차로 이용되거나 생식할 수도 있고 술을 담그기도 한다. **조경수**